예술경영지원센터 – 미국감정가협회 공동기획 감정교육프로그램

*미술품 감정의 이해*

**2017년 8월 7일 – 18일, 미국, 뉴욕**

본 과정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수강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술품 분석과 감정에 필수적인 지식과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강생들은 미국감정가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AAA)의 회원이자 현재 활동중인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인 이론교육과 더불어 가장 역동적인 미술시장 중 하나인 뉴욕의 미술현장을 경험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감정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들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본 과정은 수강생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공한다:

*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미술품의 가치평가방법
* 법적 및 윤리적 관점을 준수한 감정방법
* 감정의 연구∙방법론을 통한 미술시장 연구 및 결과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충실한 검토 근거 및 법적, 윤리적 규범을 적용한 감정보고서 작성법

총 11 강

1. **미술감정의 이해**

본 강의는 미술감정에 대한 개론으로, 감정업에 대한 소개와 감정가로부터 발급된 감정보고서에 대한 고찰 및 법적 효력을 가진 의견제시 방법 소개한다. 다양한 종류의 감정보고서를 살펴보고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감정 관련 이론 및 용어, 경제적 개념, 직업의 전문성 등의 주제를 다룬다.

* 강사: 신티아 허버트 (Cynthia Herbert), AAA.
1. **변화하는 미술시장**

서양 및 중국 미술시장의 이해. 두 미술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작품이 컬렉팅 되는지 등 주요 수집품(콜렉션)을 분석하며, 콜렉터에 대한 이해 및 자산으로서의 미술품과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 낸시 해리슨 (Nancy Harrison), AAA
1. **미술품 감정**

회화, 드로잉, 조각 그리고 혼합 매체 작품 점검 및 감정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론. 작가의 명성, 매체, 스타일, 희소성 등이 작품의 가치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 강사: 사비네 윌슨 (Sabine Wilson), Ph.D., AAA
1. **오늘날 미술계와 아시아 현대미술**

미술 생태계에 관한 강의로 갤러리, 경매사, 아트페어, 미술관, 큐레이터와 비평가, 일반 구매자부터 주요 콜렉터까지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다룬다. 본 강의는 예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시장 내부구조에 대한 실무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미술시장 트렌드 파악과 국제 미술시장에서 통용되는 법률구조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뉴욕 주요 갤러리 및 작품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 아시아 미술을 포함하여 뉴욕 글로벌 미술 현장을 보여 주는 스튜디오를 방문할 예정이다.

* 강사: 박정민 ([Jungmin Leomina Park](https://www.linkedin.com/in/jungmin-leomina-park-756b699)) (한국어로 진행예정)
1. **미술품 진위감정**

본 강의는 진위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다룬다. 진위 감정서, 소장이력 연구, 과학적 검증과 감식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가장 근래에 발생한 위작 사건과 그 방식에 주목하고 카탈로그 레조네의 활용, 미술사가(연구자)와의 협력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진위감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

* 강사: 사비네 윌슨 (Sabine Wilson), Ph.D., AAA
1. **아트옥션 : 이브닝 세일 들여다보기**

본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경매장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매우 희소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브닝 세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강의는 실제 경매장에서 이루어지며 강사와 스페셜리스트의 강연을 통해 유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고무적인 수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 강사: 박정민 ([Jungmin Leomina Park](https://www.linkedin.com/in/jungmin-leomina-park-756b699)) (한국어로 진행예정)

1. **감정의 조사방법론**

본 강의는 감정에 있어서 올바른 리서치와 감정방법론 (실사/” Due Diligence”)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항목을 적합하게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기구 뿐만 아니라 특정 도서 및 가격 기준(Price guides)을 통해 올바른 조사방법을 실습해본다.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그리고 갤러리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합한 시장, 시장의 종류, 지역 그리고 가치평가접근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강사: 조앤 케스튼 (Joanne Kesten)
1. **미국의 감정기준과 국제가치평가기준**

표준감정평가기준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의 조건과 개념에 대해 소개한다. USPAP 는 미국에서 감정가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감정평가 관련 기준 및 관행이다. 또한 국제가치평가기준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을 위한 브릿지 문서(Bridge Document)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 강사 : 신티아 허버트 (Cynthia Herbert), AAA.
1. **감정의 법과 윤리 문제**

수강생들은 감정가가 직면하게 될 복잡한 법률 및 윤리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감정은 주요 사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요하는데 가령 소유권, 진위 여부(결정), 시장성(소매시장 및 절세방안) 등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법적 고려사항을 다루며,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기밀유지, 전문역량 그리고 감정가의 의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강사: 마이클 맥컬라 (Michael McCullough). Esq.

1. **올바른 감정보고서의 작성**

감정가의 주요한 의무인 감정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본다. 올바르게 작성된 감정보고서에 대해 이해하고 “적격한 감정(Qualified Appraisal)”을 위해 USPAP와 IRS에서 요구되고 있는 최신의 법적, 전문가적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구현해본다. 각 상황에 적합한 문서작성을 위한 양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 강의실 수업. 강사: 샤론 크러스트 (Sharon Chrust), AAA.

1. **분실∙훼손된 미술품의 감정**

본 강의는 훼손과 분실된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접근법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미술품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판단하기 위한 양식, 방법론,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개발을 다룬다. 복원 전후로 필요한 검사와 문서에 대해 알아보고 보존전문가를 통해 보존 방법과 용어뿐만 아니라 작품 관리법에 대해 배워 본다.

* 강사: 사비네 윌슨 (Sabine Wilson), Ph.D., AAA
* 강의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 **샤론 크러스트 (Sharon Chrust)**

샤론 크러스트는 미국 감정가협회 이사회의 제2대 부회장으로, 전후와 현대미술 전문 감정가다. 미술시장에서 25년 이상 활동해온 그녀는 2003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감정 및 아트 컨설팅을 제공하는 샤론 크러스 & 어소시에이트 (Sharon Chrust & Associate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ASP 과정 강사와 뉴욕대학교 전문대학원(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 미술공간인 프랭클린 스트리트 워크(Frnaklin Street Works) 이사회 회원, 여성 시각예술 단체인 아트테이블(ArtTable)의 회원이다. (10. 올바른 감정보고서의 작성) 강사

* **낸시 해리슨 (Nancy Harrison)**

낸시 해리슨은 미술품 시니어 스페셜리스트이자 2006년부터 에미그란트 뱅크 파인아트 파이낸스(Emigrant Bank Fine Art Finance)의 미술자산매니지먼트(Fine Art Asset Management) 부회장을 역임했다. 에미그란트 뱅크는 콜렉터, 아트딜러, 기관 및 재단에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으로, 그녀는 2009년 미술품 감정 및 파이낸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인 미술자산매니지먼트 설립해 참여했다. 소더비에서 25년간 수석 부사장 및 19세기 유럽 회화, 조각분야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그 이전에는 소더비 런던에서 고전미술분야(the Old Master Dpt.)의 전문가이자 미술 제네럴리스트(Fine Art Generalist)로 활동했다. 감정가협회 개발위원회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Appraisers Association) 이사회장직을 수행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장으로 역임했다. 고전미술부터, 현대미술과 신진미술(Emerging Art) 전문 공인감정가. (2. 변화하는 미술시장) 강사

* **신시아 허버트 (Cynthia D. Herbert)**

신시아 허버트는 2017년 7월 1일 미국 감정가협회 회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회화, 장식미술, 골동품 외 일반 가정이 소유하는 물건이나 개인 재산을 감정 할 수 있는 일반 가정 물품의 감정 회원이자 아페르티움(Appertium)의 대표 및 주요 감정가다.  갤러리와 경매에 대한 ~~많은~~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위치한 감정평가재단 (The Appraisal Foundation)의 개인 재산 문제 위원회 (Personal Property Issues Committee)의 회원이며 표준감정기준(USPAP)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허버트는 CASP(Comprehensive Appraisal Studies Program)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대학교 전문대학원의 강사이다. (8. 미국 감정표준과 국제가치평가기준) 강사

* **조엔 케스튼 (Ms. Joanne Kesten)**

조앤 케스튼은 미국 뉴욕과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아트 어드바이저 및 감정가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미술사로 졸업하고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심리학 교육 석사, 헌터대학교 (Hunter College)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케스턴은 뉴욕대학교 전문대학원, 소더비 인스티튜트, 조지타운대학교, 쿠퍼유니온대학교, 그리고 휘트니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강연 및 강의를 진행했다.  *The Portraits Speak: Chuck Close in Conversation with 27 of His Subjects*와 *Joan Miro:Two Early Works*에 그녀의 글이 출판되기도 했다. 미국 감정가협회 공인 회원이며 미국 미술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와 아트테이블(ArtTable)의 회원이다. (7. 감정의 조사방법론) 강사

* **마이클 맥컬라(Michael McCullough) Esq.**

마이클 맥컬라(Michael McCullough) 변호사는 법률회사인 펄스테인 멕컬러 & 레드맨 LLP.( firm Pearlstein McCullough & Lederman LLP )의 파트너이다. 맥컬라는 갤러리, 경매사, 그리고 콜렉터들에게 위탁 계약, 협력 법적 약정, 진위 및 소유권 문제 등 미술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경매사, 미술품 판매자와 관련한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은 미술품 및 골동품 초기 온라인 판매자들과 일한 경험이 있으며 오늘 날 시장에서 최고의 온라인 경매회사와 일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소더비(Sotherby’s)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미술 시장 거래와 관련된 상업 및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다. (9. 감정의 법과 윤리문제) 강사

* **박정민 ([Jungmin Leomina Park](https://www.linkedin.com/in/jungmin-leomina-park-756b699))**

박정민은 2007년에 뉴욕과 서울에 설립한 미술 자문회사 레오니아 (Leonia Inc.)의 대표이다. UB 대학교 아트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역임하였으며 뉴욕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 그리고 AXA 미술 보험사(AXA Art Insurance)에서 연수과정을 거쳤다.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삼성 옥션을 거쳐 뉴욕대학교의 전문가 학위과정 중 감정 연구 과정을 이수했다. (4. 오늘날 미술계와 아시아 현대미술), (6. 아트옥션 : 이브닝 세일 들여다보기) 강사

* **사비네 윌슨 (Sabine Wilson)**

사비네 윌슨 (Sabine Wilson)은 독일 뮌헨의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ät)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뉴욕에서 시각예술 평가 및 자문을 위한 독립회사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인상파, 모던아트 및 현대미술과 관련하여 평가, 자문, 그리고 수집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위조 작품, 1,2차 세계전쟁 사이의 독일 미술과 18세기 프랑스 미술에 관련된 강의 및 도서를 출판했다. 감정가 협회의 공인 회원이자 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대학교 전문대학원(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의 강사이며 AAA 교육재단인 미국감정협회(Appraisal Institute America)에서 종합 감정 연구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3. 미술품 감정), (5. 미술품 진위감정), (11. 분실∙훼손된 미술품의 감정) 강사